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AI 시대 도전과 기회” 전북서 청년들 만나 노하우 ‘공유의 장’ 열어

2025. 8. 20.

쿠팡 박대준 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청년 대상 AI·디지털 물류 혁신 사례 공유해 창업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쿠팡-지자체-청년 협력 기반 구축**

2025. 08. 20. 서울 - 쿠팡은 어제(1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쿠팡 WOW Stage in 전북: AI시대 청년의 도전과 기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창업과 지역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쿠팡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이번 행사는 쿠팡이 전북대학교, 청년 창업 단체 등과 함께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전문가 강연, 청년과의 대화, 네트워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을), 박대준 쿠팡 대표를 비롯해 약 200명의 청년 CEO와 대학생들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

1부 강연에서는 엄지용 커넥터스컴퍼니 대표가 ‘AI 기반 이커머스 물류 트렌드와 SME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이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창업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했다.

(좌측부터)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대준 쿠팡 대표, 엄지용 커넥터스컴퍼니 대표가 '청년과의 대화'에 함께한 모습.

이어진 2부 '청년과의 대화'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대준 쿠팡 대표 등 참석자들과 지역 청년들이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창업의 어려움, 디지털 전환 전략, 지역 상품의 온라인 판로 개척 방안 등 현실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박 대표는 쿠팡의 혁신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조언과 격려를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청년 창업이 성공하려면 민간과 지자체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쿠팡과 같은 혁신 기업과 협력해 지역 청년들이 도전을 이어 나가고, 전북이 청년 창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준 대표는 "쿠팡은 고객 중심의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커머스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왔다"며 "쿠팡의 혁신 경험과 물류 인프라를 통해 지역의 벤처·청년 CEO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이번 전북 행사를 시작으로 청년 창업 지원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